

전진하는 일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전 국가형제회장 캐서린 몰라로
(Kathleen Molaro, OFS)

사람들은 당장 눈 앞의 일도 숨이 막힐 지경이라 그 이상의 일은 생각지도 못한다.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살려 해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절망, 분열, 탐욕, 두려움, 무관심 같은 감정들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여기서 재속회원들은 어려운 일은 아예 피해 버리거나 복음과 회칙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한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믿거나 신앙 없이 살거나, 기쁘게 봉사하거나 좌절하고 손을 놓거나, 정의롭게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재속회원들이 할 일은 하느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보기와 뒷받침이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은 세상에 실제로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며, 우리 마음에 신적 씨를 심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삼천년을 향한 희년에 불리움과 은총을 받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정신으로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할 신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교님들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과제를 젊은이들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젊은이들과 더불어 거룩하게 성장해 간다면, 그들의 능력과 열정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간사회의 막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로와 힘이 된다.” 특히 세상이 변하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서 이 세상에 복음적 가치를 심게 할 수 있다.

이 과업을 달성할 방법을 찾고자 프란치스칸 청소년분과 담당자들과 지구대표들이 여름 내내 매주 Zoom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의 발표와 대화는 활기와 성령에 가득 찼었고, 서로서로 격려해 주는 가운데, 깨우침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연대하여 당면한 시련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의논하였다. 청소년 분과에서는 이 화상모임을 통해 지구형제회들이 영감을 얻고 방법을 찾아 내어 이 과업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자신있게 청소년들 속으로 뛰어들어 봉사하고, 그들과 마음을 트고, 재능을 나눌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프란치스칸 청소년 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청소년 분과와 지구 담당자에 의견을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는 올해 국가형제회 주제인 “사랑과 연민을 나누는 여정”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기에 달려 있다. 청소년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주교님들은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젊은이들을

- 1)예수그리스도에게로
- 2)교회로(그리스도 공동체에 초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한다.)
- 3)(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으로
- 4)또래 공동체로(그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한다.)

인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빛의 아들딸: 청소년봉사를 위한 사목계획, 미국주교회의*)
(*Sons and Daughters of Light: A Pastoral Plan for Ministry with Young Adults, USCCB*)